



김제시새마을회, 폐농약병 농약봉지 환경살리기 운동

김제시새마을회(회장 함길권)는 12일 시민운동장에서 환경살리기운동 일환으로 폐농약병과 농약봉지 모으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날 새마을지도자김제시협의회(회장 박용운), 새마을부녀회(회장 송연순), 새마을문고김제시부회(회장 최연학)등 19개 읍면동 새마을회원 1,000여명은 년 중 수거해온 폐농약병, 농약봉지 등 약 20톤을 모아 시민운동장에서 분리작업을 거쳐 한국환경관리공단에 배출하였다.

함길권 회장은 "김제시새마을회에서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해 폐농약병과 농약봉지 무단소각과 무단투기 근절 캠페인을 꾸준히 하여 폐농약병과 농약봉지가 거의 사라졌으며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회용품인쓰기, 에너지 아끼기, 폐영농물 무단소각 안하기, 등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덕진동 지사협, 취약계층에 삼계탕세트 전달

전주시 덕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임예정)는 12일 초복을 맞아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가구 등 60여 세대에 삼계탕세트를 전달했다.

덕진동지사협 임예정 위원장은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에 원기충전에 좋은 삼계탕을 전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덕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나눔과 봉사에 꾸준히 앞장설것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장계면 주민자치위, 역량강화 위한 여수 선진지 견학

장계면 주민자치위원회는 12일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위원 간 결속력 향상을 위해 주민자치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시 일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여수의 관광 정책을 장계면 지역사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동도 엑스포 공원 방문 및 해상 캐이불가 체험 등으로 진행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97만여 명이 방문한 관광도시로, 매년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장계면주민자치위원회는 이번 선진지 견학을 통해 여수시의 관광 정책을 벤치마킹해 장계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김제 요촌동 주민자치위, 양심 화단 조성 추진

김제시 요촌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우정)는 12일 새벽시장 입구에 양심 화단 조성하고 함께 작년 11월에 조성한 관내 6개소의 대상지를 돌아보면서 적체되어있는 불법 투기 된 쓰레기를 치우는 등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관내 쓰레기 불법 투기 지역인 새벽시장 입구는 작년에 한차례 정비한 바 있지만 평소 지속적인 환경미화 작업과 불법투기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올해 다시 환경정비 사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양심화단 조성을 통한 인식개선을 기대하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발적인 참여에 주민들이 힘을 모아 새벽시장 입구에 꽃을 식재하여 환경정비를 마쳤다. /김제=곽노태 기자

“영양찰밥 드시고, 건강한 여름 나세요”

완산구해바라기봉사단, 17개동 어르신에 밑반찬 등 대접·말벗

전주시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회장 황의숙)은 12일 중화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여 일 동안 관내 17개 경로당 어르신에게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영양찰밥 나눔” 봉사를 실시한다.

237명의 완산구 해바라기 봉사단은 7월 12일부터 7월 29일까지 각 동 관내 경로당 17개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영양찰밥, 밑반찬, 과일 등을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기운을 북돋아 주고 안부를 살필 예정이다.

이날 봉사단은 중화초등학교 경로당에서 어르신 20여 명을 모시고 영양찰밥과 반찬, 과일 등 먹거리 일체를 직접 조리해 어르신에게 대접했다.

황의숙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 회장은 “매년 여름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오던 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해서 아쉽고, 올해는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며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고, 올 여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수 완산구청장은 “관내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처럼



처럼 살뜰하게 챙겨주고 효사랑 나눔에 적극 앞장서는 해바라기봉사단에 감사하다”며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은 1998년 창단된 이래 폐지수거어르신 생일케이크 나눔, 저소득층 김장 및 명절 나눔봉사, 밑반찬 봉사,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 등 합동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김윤상 기자



정읍시의회, 충훈탐 참배 주요 기관·단체 방문

지난 11일 제9대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앞서 충훈탐을 방문하여 참배함으로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어 제9대 정읍시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이 새롭게 선출, 구성됨에 따라 11일과 12일 양일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 주요 기관·단체 7개소를 방문 취임 인사와 지역발전 논의 및 의정 발전 고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경윤 의장은 주요기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각 기관·단체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기관·단체간 이기주의에서 탈피하여 협력을 통해서 정읍시 발전을 이루어나고 11만의 정읍시민이 지금보다 더 행복의 고도를 높여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농지은행사업 적극 홍보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는 11일, 이백문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제28회 남원시후계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행사장을 찾아 농지은행사업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사 직원 10명은 행사장을 찾은 농업인들에게 농지은행사업 팸플렛과 기념품을 나눠주며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연금과 경영회생사업 등 홍보와 상담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남원지사는 총 108억원의 농지은행사업 예산을 확보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스마트형 농지지원 66억원, △경영회생 28억원, △과원규모화 3억원, △농자연금 3억원, △경영이익 직불사업 3억원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반햇소 영농조합, 장학금 100만원 기탁

무주반햇소 영농조합(대표 전병술)이 12일 사회적응업 생산품 판매행사의 수익금 100만 원을 무주군 인재육성을 위해 사용해달라”면서 무주교육발전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이날 무주군청에서 진행된 기탁식에서 전병술 대표는 “무주특수교육 청소년들이 사회적응업을 통한 수익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어 기부하기로 했다”며 “미래 무주 발전을 이끌 무주지역 청소년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탠다”고 말했다.

황인홍 군수(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이사장)는 “우리 무주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선뜻 장학금을 기탁해 매우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무주반햇소 영농조합법인은 정육사당 운영을 통해 양질의 한우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소시지, 떡갈비 등의 육류가공식품을 생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농림부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응업으로 선정돼 무주특수교육 대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응업 활동을 통해 농업·직업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 복지시설에 삼계탕 후원

연일 무더운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주지역 여성 자원활동가들이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고 나섰다.

전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회장 황정희)는 12일 초복을 앞두고 지역 기업으로부터 후원받은 삼계탕 200개를 중증장애인 지역생활지원센터와 희망아, 신성안로원 등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15개소에 전달했다.

전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는 매년 명절마다 알뜰장터를 운영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해왔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장터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지역 내 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다양한 나눔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황정희 전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나눔 활동에 함께해 주신 기관과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며 “힘든 시기일수록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에 지속적으로 앞장설것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 편기현 교수, 지역인재 양성 위해 1000만원 기부

전북대학교 편기현 교수(컴퓨터공학부)가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8년 전 대학에 부임해 우수인재 양성과 연구에 매진해 온 편 교수는 전북대의 SW중심대학사업 단장을 맡으면서 그간의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

이 사업은 대학 교육체계를 혁신하고 AI 등 신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분야 전문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8년 동안 진행된다.

8년 간 15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융합교육 과정을 신설하는 등 교육과정을 개편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SW 핵심 인력 육성에 나선다.

편기현 교수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모든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초·중·고 교육 방식도 정보 전달 쪽으로 강화되는 등 교육정책 체계가 바뀌어 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기금이 대학 어느 한 곳에 안주하기 보다 지역 변화에 잘 맞춰 알맞은 교육 정책을 펼치는 데 자유롭게 쓰여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농협은행 정읍시지부, 사랑의 쌀 전달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지부장 이재연)는 12일 정읍시 시가지에 위치한 성공회 행복노인복지센터를 통해 쌀 200kg을 전달했다.

이재연 지부장은 “사랑의 쌀 전달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 등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

전북농협은 지난해 쌀 생산량 증가와 소비감소에 따른 쌀 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돕고자 지난해부터 한 달(1)에 20kg 쌀 두포씩(2) 삼(3)개월 간 자율 구매(선물)하는 “쌀 소비촉진 1·2·3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재연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장은 “쌀 소비촉진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쌀 전달 행사를 준비했다”며, “며 수확기 전까지 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꾸준히 시행해 농가부담을 줄여나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여성단체협의회, 아동복지시설에 삼계탕 전달

전주여성단체협의회(회장 강영이)는 지난 11일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기부한 삼계탕 150여명 분을 아동복지시설 5개소에 전달했다.

이날 후원한 물품은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주중앙아동 △호성보육원 △삼성휴먼빌 △삼성차림지원시설 △다정아동일시보호 시설에 각각 개별 포장된 삼계탕이 전달됐다.

아동시설 관계자들은 이날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에 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삼계탕을 지원해주신데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강영이 전주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은 “아이들이 영양사된 삼계탕을 먹고 더욱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며, 앞으로도 관내 보호대상아동들을 위한 나눔활동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고창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불시특별점검 나서

고창소방서(서장 리명순)는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출입구를 폐쇄·제한적으로 운영했던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등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불시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오는 7~8월 둘째, 셋째 주에 판매·의료·노유자·숙박 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사전예고 없이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피난로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차단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하여 원상복구, 과태료를 부과 방침이다.

리명순 서장은 “화재 발생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관계인의 자발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이번 계기로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